

# 무단횡단·불법 유턴·난폭운전 광주는 무질서 전시장



## ② 교통사고 1위, 왜?

광주 4년 연속 '교통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쓴 것은 시민들의 낮은 질서 의식과 취약한 교통인프라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부족한 주차공간과 협소한 도로 사정 속에 무단횡단이나 오토바이 사고, 불법 유턴 등 교통 무질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는 차량 대 보행자의 사고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기초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만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천231건으로, 2007년(7천881건)에 비해 4.4%(350건) 늘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156.4대로, 전국 평균(105.7대)을 크게 상회하며 '교통사고 1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 차량 대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

### ■ 시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8년		전년대비증감률(%)	
	발생	사망	발생	사망
계	215,822	5,870	338,962	2.0 -4.8 0.9
서울	41,643	477	59,797	5.8 7.2 4.2
부산	12,302	246	18,246	19.4 -11.5 18.0
대구	13,553	203	19,629	1.6 6.8 1.4
인천	10,972	197	16,969	1.4 8.2 0.1
광주	8,231	138	13,533	4.4 -9.2 6.3
대전	5,484	106	8,673	2.2 -19.7 1.2
울산	5,140	97	7,782	10.8 -5.8 8.5
경기	39,727	1,069	64,995	-3.3 -10.4 -5.0
강원	8,780	301	15,403	-1.2 -12.8 -3.6
충북	8,393	322	14,097	4.5 11.4 6.1
충남	8,551	530	14,665	-0.9 -0.2 -0.7
전북	9,782	412	16,367	-1.1 -3.7 -3.5
전남	10,502	483	18,188	-0.8 -10.9 0.6
경북	15,626	665	24,585	-4.9 -11.9 -3.8
경남	13,954	528	21,241	4.9 5.4 3.9
제주	3,182	96	4,792	1.5 -4.0 0.5

(자료:경찰청)

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의 차량 대 사람의 교통사고 건수는 1천671건으로 전체 사고의 20.3%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차량 대 사람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전체의 47.1%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보행자가 차지한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등도 원인이 있지만, 횡단 보도 등에 사람이 지나가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진입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또 대다수 운전자들은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져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들의 무분별한 무단횡단도 차량 대 사람의 사고 발생률 증가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67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1명이 목숨을 잃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의 노인 교통사고는 717건으로, 2007년(577건)보다 24.3%(140건)나 급증했다.

노인들의 경우 무단횡단 등 보행중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사고가 580건이 발생해 794명이 다치고, 10명이 숨졌다.

날로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로위의 '무법지'로 통하는 오토바이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659건의 오토바이 사고로 89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국토대장정 힘찬 출발



조선대 제6기 국토순례단이 6일 오전 대학내 1·8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광주→제주→광주(398.9km)에 이르는 15박16일 일정에 돌입했다. 대장정 첫날 광주시 남구 주월동을 지나 나주로 향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활기차다.

위리정기자 jrw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4분  
해질 19시 50분

달돋이 19시 54분  
달질 04시 54분

**장맛비**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22/26℃
목포	흐리고 비	23/25℃
여수	흐리고 비	21/24℃
완도	흐리고 비	22/25℃
구례	흐리고 비	21/26℃
해남	흐리고 비	22/25℃
장흥	흐리고 비	22/25℃
고흥	흐리고 비	21/24℃
순천	흐리고 비	21/26℃
영광	흐리고 비	22/25℃
진도	흐리고 비	23/25℃
전주	흐리고 비	23/25℃
남원	흐리고 비	23/25℃
목포	흐리고 비	23/25℃
제주도	흐리고 비	21/25℃

지역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2.0~3.0m	보통	경고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남~남서	1.5~2.5m	보통	경고	보통

◇주간날씨

날짜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2/30	23/27	23/29	22/29	22/30	22/29



**100mm** 곡성서 450년전 미라 발견  
광주·전남 호우특보 복식·바느질 비밀 풀리나

## “中企 선호 ... 연봉은 2,500만~3천만원”

전남대생 9천여명 설문  
70% 혼전 성관계 'OK'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남대학교 취업지원과에 따르면 최근 재학생 9천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취업을 생각해 보겠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 중 73.8%였다. 그러나 응답자 중 26.2%는 고용불안과 임금수준 등의 이유로 들어 중

소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봉 수준은 “2천500~3천만원”(2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천500~4천만원이 19.2%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10명 중 7명 가량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 ‘절대 불가’는 12.6%에 그친 반면 절반에 가까운 45.6%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21.7%는 ‘결혼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중 혼전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남자가 80% 정도로 여자 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은 7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시작된 장맛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6일 예보했다. 이날 예상되는 비의 양은 40~100mm.

기상청은 7일 낮을 기해 광주·전남 전지역에 호우특보를, 신안군과 완도군에 강풍특보를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인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비는 특히 장마전선이 활성화 되는 7~10일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곡성에서 450여년전 복식을 연구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옷을 입은 남성 미라가 발견됐다.

6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서종환)은 “5일 오전 곡성군 삼기면 장흥 마세 선사에서 이장(移葬) 작업을 하던 중 450여년 전 습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미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라는 160cm의 키에 손톱과 발톱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묘의 구조가 전형적인 회곽묘(灰槨墓)로 나무 재질의 내관과 석회로 친 6면의 외곽으로 짜여 외부 공기를 차단, 비교적 보존이 잘 돼 있었다.

후속 측은 이날 발견된 미라를 매장했으며, 시립민속박물관은 의복을 거둬들여 복식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광기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자율고·외국어고 차질 빛나

자율고, 문성고 신청 철회 ... 송원고만 남아  
외국어고 지정도 보문여고 1곳만 적격심사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와 외국어고 지정이 해당 학교의 잇따른 신청 철회로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지정 신청을 한 자율고 2곳 가운데 문성고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자율고는 애초 문성고와 송원고 등 2곳이 신청했으나 송원고만 남게 됐다.

문성고는 연간 2억원에 달하는 법

인정임금 부담과 학생 선발권 제한 등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자율고 지정 대상으로 애초 2곳 정도를 생각했으나 문성고가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송원고만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적격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이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외국어고 지정도 애초 보문여고 등 2곳이 신청했으나 대광여고가 철회해 한곳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 학교가 교사와 시설 등 제반적인 운영여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내년 개교를 미루더라도 학교 신설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자율고와 외국어고는 최소한 이달말까지 지정 절차가 마무리 돼야만 시설과 인력보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백두산**

1699-226-6070

**“고객 감사 세일”**

● 펼쳐 광주 MBC 문화회관 상층1062-226-6070마를 확인하십시오.  
-특별 행사 상품 구매 요망-

**무안 ↔ 연길 직항(무안 공항 주차장 무료 이용)**  
**7/25, 7/28, 8/1, 8/4, 8/8 (단, 5회 한정)**

항선	출발	도착	요금
무안→연길(복합)항공권	7/25, 7/28	8/1, 8/4	₩ 799,000
연길→무안(복합)항공권	8/1, 8/4	7/25, 7/28	₩ 799,000
무안→연길(복합)항공권	7/25, 7/28	8/1, 8/4	₩ 799,000
연길→무안(복합)항공권	8/1, 8/4	7/25, 7/28	₩ 799,000
무안→연길(복합)항공권	7/25, 7/28	8/1, 8/4	₩ 799,000
연길→무안(복합)항공권	8/1, 8/4	7/25, 7/28	₩ 799,000
무안→연길(복합)항공권	7/25, 7/28	8/1, 8/4	₩ 799,000
연길→무안(복합)항공권	8/1, 8/4	7/25, 7/28	₩ 799,000
무안→연길(복합)항공권	7/25, 7/28	8/1, 8/4	₩ 799,000
연길→무안(복합)항공권	8/1, 8/4	7/25, 7/28	₩ 799,000